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 선택

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애욕(愛欲)의 불길을 '혹'하고 불어서 꺼,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고, 중도(中道)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 ①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을 추구한다.
- ② 연기(緣起)를 자각하고 양극단의 치우침에서 벗어난다.
- ③ 번뇌(煩惱)를 제거하여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 ④ 바른 수행을 통해 불변의 자아(自我)를 확립하고자 힘쓴다.
- ⑤ 윤회(輪廻)를 거듭하기 위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린다.

2. 근대 서양 사상이자, 현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통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또한 자연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안정을 추구하지만, 세계가 역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고 불안과 절망을 느낀다. 이때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 ① 갑: 신을 만물의 초월적 원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의 인과적 질서를 이성적으로 관조해야 한다.
- ③ 을: 합리적 사유를 통해 모든 불안과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개인의 주체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본질을 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인격신에 귀의(歸依)함으로써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3. 고대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본성[性]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天]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것[存心養性]이 곧 하늘을 섬기는[事天] 방법이다.

을: 천지가 합쳐 만물이 생겨나고, 인위적인 노력[偽]을 통해 본성은 선해지며[化性起偽]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으나 만물을 분별하지 못하며, 땅은 인간을 담고 있으나 인간을 다스릴 수는 없다.

- ① 갑: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불인인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③ 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선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 ④ 을: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엄격히 구분[天人分二]해야 한다.
- ⑤ 갑, 을: 인간마다 본성은 다르지만 타고난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

4.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신은 변함없는 선으로 영원하고 불멸하다. 신은 세상을 천상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천상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을: 신의 존재는 논증될 수 있고, 초월적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신의 존재는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 보기 >

ㄱ. 갑: 인간은 지상의 국가에서 자유 의지를 지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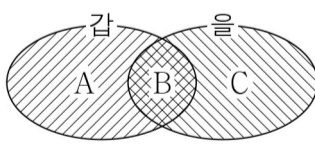
ㄴ. 갑: 신은 선과 악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존재이다.

ㄷ. 을: 신의 계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한다.

ㄹ. 갑, 을: 인간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의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p> <p>을: 치지는 격물에 있다는 말은,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앎을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다.</p>
(나)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0;">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ㄴ. B: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ㄷ. B: 격물은 양지를 발휘하여 마음을 바로잡는[正] 것이다.

ㄹ. C: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2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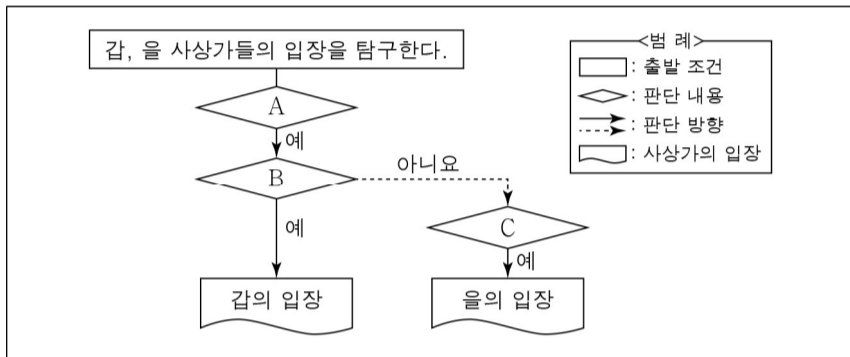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주자는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發)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다.”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은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다.

을: 주자가 “이(理)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발한다.”라고 말한 것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兼)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6. 갑, 을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性)인가?  
 ㄴ. B: 칠정에는 선악의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가?  
 ㄷ. B: 사단의 연원과 칠정의 연원은 서로 다른 것인가?  
 ㄹ. C: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연(始然)이란 불의 시작이고 시달(始達)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이다. 시연이 확충되어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들불이나 화롯불이 되고, 시달이 확충되어 물길이 도도히 흐르면 강이나 하천이 되며, 측은이 확충되어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단(端)은 시작[始]을 뜻할 뿐만 아니라 나오는 단서[緒]가 아니다.

- ①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사덕(四德)임을 모르고 있다.  
 ② 사덕의 단서인 사단이 마음속의 이치임을 모르고 있다.  
 ③ 사덕은 모든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실현됨을 모르고 있다.  
 ④ 사단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사덕이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⑤ 인간에게 사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8.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고정된 목적에 도달했는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다. 그것은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며, 다듬어가는 삶의 과정이다. 정직, 절제, 정의도 획득하거나 소유되어야 할 선들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①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찾아야 한다.  
 ② 사회적 전통과 관습에 근거한 도덕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③ 현재 상황의 개선보다 고정불변한 가치 추구에 힘써야 한다.  
 ④ 진리는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보편성을 지님을 깨달아야 한다.  
 ⑤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

9.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 상덕(上德)은 덕이라고 하지 않기에 덕이 있고, 하덕(下德)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에 덕이 없다. 상덕은 무위(無爲)이므로 작위가 없으며, 하덕은 유위(有爲)이므로 작위가 있다.  
 ○ 예(禮)는 진실함과 믿음[忠信]이 희박해진 것으로 세상을 분란케 하는 시초이다. 이에 대장부(大丈夫)는 중후한 곳[上德]에 처하지, 천박한 곳[下德]에 처하지 않는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道)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		√	
겸허(謙虛)의 자세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			√	√
상덕을 바탕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	√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다음은 근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를 압도하는 공통 권력의 부재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둡니다.



갑



을

- ① 갑: 개인의 이타심이 국가 형성의 근원적 동기이다.  
 ② 갑: 국가 권력의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계약은 유지된다.  
 ③ 을: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④ 을: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 없이도 성립 가능하다.  
 ⑤ 갑, 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부여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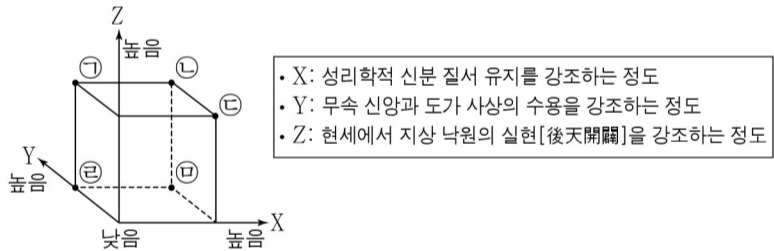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덕은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덕을 아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을: 덕은 사려 깊음에서 생겨난다.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다. 즐거운 삶이란,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 ① 갑: 모든 덕은 참된 삶에서,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 ② 갑: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 ③ 을: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모든 욕망을 충족해야 한다.
- ④ 을: 은둔하며 사는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서양 물건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정학(正學)을 밝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의 올바른 도(道)가 흥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나)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여 만고(萬古)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고쳐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덕(德)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백성들을 제도[政]와 형벌로 다스리면, 그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보기>

ㄱ.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ㄴ. 시비와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ㄷ. 통치자는 인격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ㄹ. 통치의 궁극적 목표를 엄격한 법치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4. 다음 가상 대화의 선생님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이다.
- ② 국가의 적극적 역할로 노동 소외가 극복된 사회이다.
- ③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계급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이다.
- ④ 폭력 혁명이 아닌 의회 활동으로 실현되는 민주 사회이다.
- ⑤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업으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도덕 법칙은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있어서는 신성한 법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있어서는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  
 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  
 병: 도덕적 선악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도덕적 선악은 그것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이성만은 단지 정념에 복종할 뿐이다.

(나)

- ① A: 보편타당성을 갖는 도덕 원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C: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③ D: 도덕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이성이 아닌 감정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 ④ F: 도덕 법칙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E: 사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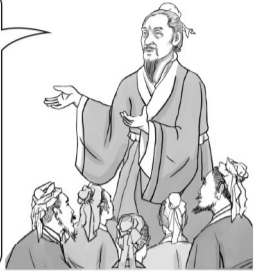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천하의 찬탈(篡奪)\*과 원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전쟁은 천하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불의(不義)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兼愛]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는[交利]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탈(篡奪): 왕위·국가 주권 따위를 빼앗음



< 보기 >

- ㄱ.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利] 하는 모든 전쟁은 허용된다.
- 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 ㄷ. 전쟁은 자국과 타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발생한다.
- ㄹ. 전쟁은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만 손해[害]를 끼치는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과 수단의 통제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노예의 길이다. 오직 시장의 자생적 질서만이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인간 존엄성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을: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 최선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던 전통적인 경제학은 대량 실업을 낳았다.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①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시장에서 생산의 효율성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④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 개입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을 간과한다.
- ⑤ 복지 제도를 확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탁월함 또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이 후자에는 용기, 절제 등이 있다.

을: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추론적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앎을 인식한다. 이성이 자신의 고유한 일을 잘 행하고 있는 탁월함이 지혜이고, 기개의 탁월함이 용기이며, 욕구의 탁월함은 절제이다.

< 보기 >

- ㄱ. 갑: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닌 덕과 악덕 사이의 적절함이다.
- ㄴ. 갑: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ㄷ. 을: 정의는 영혼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덕이 조화된 상태이다.
- ㄹ. 갑, 을: 용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중국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까마귀가 깹깹대며 상서롭지 않게 울 때, 당신은 그 울음소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다. 그릇된 판단은 정념을 일으켜 평온함[apatheia]을 깨뜨릴 것이다.

을: 까마귀는 날마다 먹질을 하지 않아도 검고, 백조는 날마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다. 검고 흰 본바탕은 좋고 나쁨을 따질 것이 못 된다. 참된 사람[真人]은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 대립을 넘어 서서,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닌다.

< 보기 >

- ㄱ. 갑: 모든 정념을 제거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 ㄴ. 갑: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여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 ㄷ. 을: 자기중심적 편견을 극복하여 만물을 차별 없이 봐야 한다.
- ㄹ. 갑, 을: 자연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참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의 지성을 좀먹고 있는 우상(偶像)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인간 정신의 돌파구를 봉쇄한다. 이러한 우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귀납법에 의해 개념과 명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을: 인간의 감각은 때로는 인간을 기만하므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동안에도 생각하고 있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철학의 제1원리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학문 탐구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을은 ㉡ 철학의 제1원리는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 학문 탐구의 방법으로 연역적 추론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올바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